

G 11.1 -(으)면서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춡다) 동생은 추우면서 코트 입기 귀찮아서 안 추운 척해요.
2. (알다) 저 사람은 다 알면서 가르쳐 주기 싫어서 모르는 척해요.
3. (좋다) 좋으면서 말 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4. (모였다) 파티에 세 명밖에 안 모였으면서 많이 모였다고 해요.
5. (생겼다) 민지는 남자 친구가 생겼으면서 물어보면 없다고 해요.
6. (피했다) 동수는 자기가 나를 피했으면서 내가 모른 척했다고 해요.
7. (빌렸다) 친구한테서 돈을 빌렸으면서 말도 안 하고 떠나면 어떻게 해요?

G 11.2 -기는 하다 / -기는 -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싸다) A: 이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이 어때요?
B: 음식 값이 싸기는 한데 맛은 별로예요. / 음식 값이 싸기는 싼데 맛은 별로예요.
2. (쌀쌀하다) A: 장갑을 낄까요?
B: 날씨가 쌀쌀하기는 한데 장갑을 낄 정도는 아니예요. / 날씨가 쌀쌀하기는 쌀쌀한데 장갑을 낄 정도는 아니예요.
3. (들다) A: 이 구두가 마음에 드세요?
B: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너무 비싸네요. / 마음에 들기는 드는데 너무 비싸네요.
4. (있다) A: 여기에서 집까지 직접 가는 버스 있어요?
B: 네, 있기는 한데 좀 오래 걸려요. / 네, 있기는 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5. (들었다) A: 김수미 씨 소식 들었어요?
B: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6. (합격했다) A: 시험에 합격한 거 축하해요!
B: 합격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합격하기는 합격했는데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 (챙기다) A: 가지고 갈 물건들은 챙겼어요?
B: 챙기기는 했는데 뭐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 챙기기는

챙겼는데 뭐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G 11.3 N(이)라면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A. "If it is N ~ "

1. A: 잘 하시는 외국어 있습니까?
B: 스페인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2. A: 언제 시간 좀 있으십니까?
B: 네, 토요일이라면 괜찮습니다.
3. A: 한국 음식 만들 줄 아십니까?
B: 떡국이라면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4. A: 한국에서는 설날에 식구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놀니까?
B: 설날에 하는 놀이라면 윷놀이지요.
5. A: 이 글을 내일까지 번역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겠습니까?
B: 김유진 씨라면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B. Subjunctive usage

6. (on a regular week,) 이번 주가 연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7. (driving on a local road,) 이 길이 고속도로라면 오늘 지각을 안 할 텐데. . .

G 11.4 아무 N(이)나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아무나) A: 이번 파티에 아무나 가도 돼요?
B: 네, 아무나 가도 돼요.
2. (아무거나) A: 배가 많이 고프지요? 뭐 먹을래요?
B: 네, 아무거나 주세요. 배 고파 죽겠어요.
3. (아무데나) A: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갈까요?
B: 네, 이런 날에는 아무데나 가도 좋아요.
4. (아무때나) A: 언제 전화를 드릴까요?
B: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때나 하셔도 돼요.
5. (아무 신문이나) A: 지루하실 텐데, 뭐 읽을 것 좀 드릴까요?
B: 네, 아무 신문이나 주세요.

6. (아무 옷이나) A: 내일 모임에 뭐 입고 가야 돼요?
 B: 중요한 모임이 아니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셔도 돼요.
7. (아무한테나) A: 이 물건을 누구한테 드리면 될까요?
 B: 그거요? 저 사무실에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주시면 돼요.

G 11.5 Question word(이)든지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뭐든지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2.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3. 누구든지 한복을 입고 오면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어떻게든지 해 봐야지 그냥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5. 누구한테든지 올해는 똑같이 세뱃돈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어느 박물관에든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 배우게 하십시오.
7. 어디에서든지 만나면 말을 해 줄 텐데, 요즘은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G 11.6 -기 위해(서) / 위하여

Repeat after each sentence.

A. -기 위해서 (a verb phrase)

1. 세뱃돈을 넣기 위해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2. 의대에 가기 위해서 과학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3. 입장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4. 차례 지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B. -기 위한 (a noun phrase)

5. 이 곳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놀이공원입니다.
6. 이것은 법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7. 이것은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a policy, a regulation)



G 11.7 -아/어 버리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있다) A: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B: 네. . . 회사에 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 버렸어요.

2. (잊다)

A: 어제 빌려간 책 가지고 왔어요?

B: 아, 참! 깜빡 잊어 버렸어요. 내일은 제가 꼭 가지고 올게요.

3. (자르다)

A: 머리를 짧게 잘랐네요?

B: 네, 머리를 손질하기 귀찮아서 아주 짧게 잘라 버렸어요.

4. (쓰다)

A: 저어, 20불만 빌려 주실래요? 내일 드릴게요.

B: 아까 학교 서점에서 책 사느라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써 버렸어요.

5. (끝내다)

A: 다음주까지 내야하는 경제학 수업 리포트는 끝냈어요?

B: 네, 이번 주말에 친구가 놀러 오기 때문에 미리 다 끝내 버렸어요.

6. (출근하다)

A: 민영이 몸도 안 좋은데, 뭐 좀 먹고 출근했어요?

B: 아니요, 지각할 것 같다고 하면서 차려 준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해 버렸어요.

7. (먹다)

A: 다이어트 잘돼 가요?

B: 아니요, 어제도 밤 늦게 배가 고파서 케이크를 두 조각이나 먹어 버렸어요.

